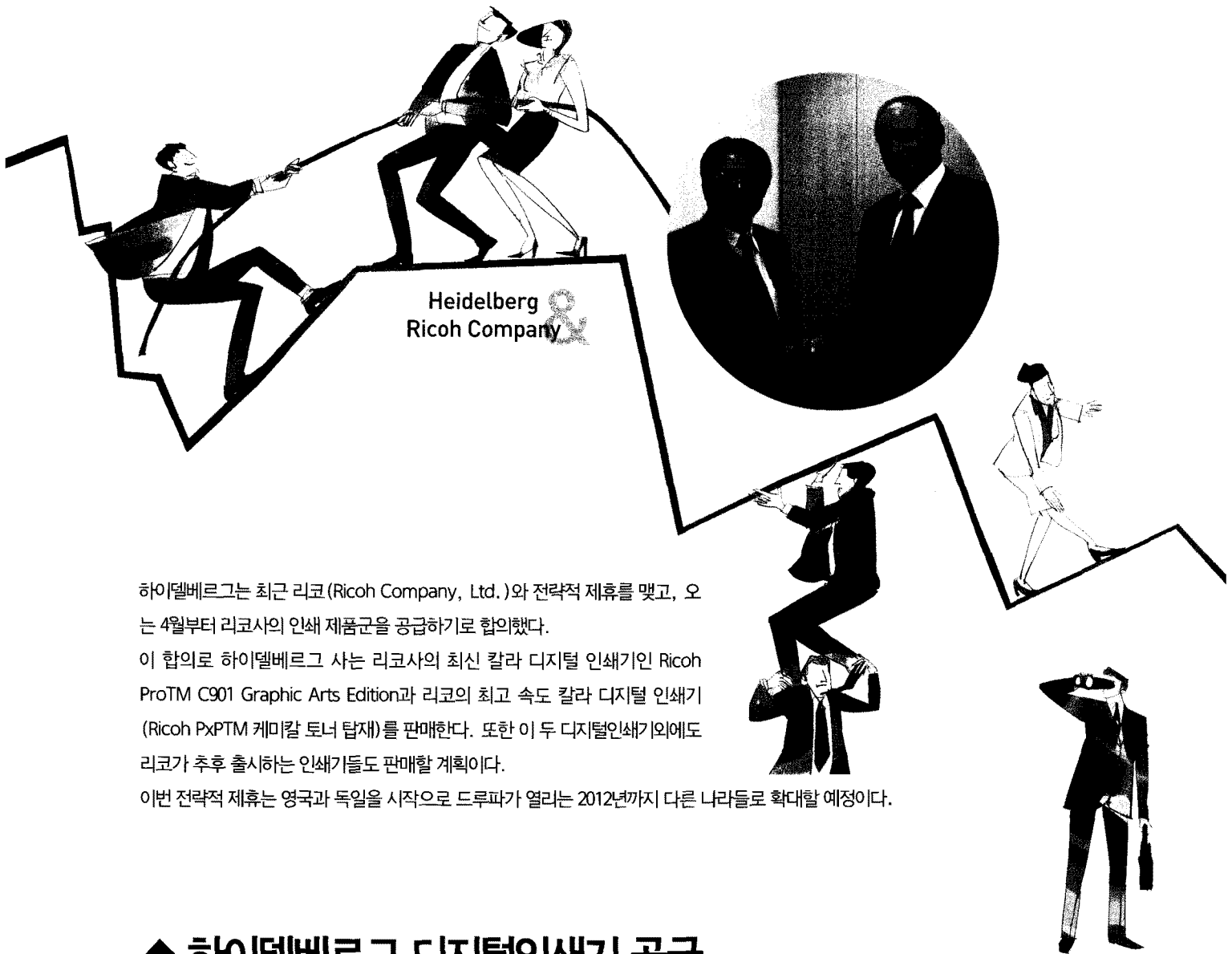


## ◆ 하이델베르그, 리코와 전략적 제휴 선언



하이델베르그는 최근 리코(Ricoh Company, Ltd.)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오는 4월부터 리코사의 인쇄 제품군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하이델베르그 사는 리코사의 최신 칼라 디지털 인쇄기인 Ricoh ProTM C901 Graphic Arts Edition과 리코의 최고 속도 칼라 디지털 인쇄기(Ricoh PxPTM 케미칼 토너 탑재)를 판매한다. 또한 이 두 디지털인쇄기 외에도 리코가 추후 출시하는 인쇄기들도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적 제휴는 영국과 독일을 시작으로 드루파가 열리는 2012년까지 다른 나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 ◆ 하이델베르그 디지털인쇄기 공급

최근 마케팅 서비스, 단통 칼라 및 1day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인쇄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기존의 오프셋인쇄기만을 가진 인쇄인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오프셋인쇄기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솔루션을 보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재, 오프셋 인쇄인들은 거의 무한대의 인쇄 용지, 별색 및 최신의 코팅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리코 사의 디지털 인쇄 기술을 추가하면 가변 데이터 인쇄, 급한 인쇄 작업의 즉각적 배송과 매우 작은 통수의 비용 효과적 작업 등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이델베르그와 리코 사는 향후 하이델베르그의 산업 표준 워크플로우 솔루션인 프리넥과 통합할 뿐 아니라 미래 인쇄 작업을 위한 협력 개발 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시로 콘도(Shiro Kondo) 리코사 CEO는 “상업 인쇄인들이 유연해 지고 장통 및 단통 작업 모두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델베르그는 상업 및 패키징 인쇄에서 최고의 표준이다. 이 파트너십은 리코가 그래픽 아트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버나드 스레이어(Bernhard Schreier) 하이델베르그 CEO는 “애니칼라 기술을 포함한 하이델베르그의 오프셋 인쇄기는 새로운 디지털 인쇄기를 함께 공급함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의 비용대비 효과적인 인쇄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품질 오프셋 인쇄와 함께 단통 뿐 아니라 가변 데이터 인쇄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 ◆ 진성엔지니어링 습수멸균 정화장치, 진공흡착방식편칭기 공급



진성엔지니어링(대표 이평진)은 최근 자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공개해 인쇄인들에게 적극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진성엔지니어링에서 가격을 공개한 제품은 습수멸균 정화장치와 진공흡착방식편칭기로 각각 350만원과 850만원이다.

### 습수멸균 정화장치로 가동률 높이고, 폐수처리 비용도 절감

축임물 교환주기가 매 1~2주간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국내의 습수 관리 상태는 열악한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잉크, 지분, 파우더 등의 영향으로 편면에 도달하는 수막이 안정을 잃게 되어 인쇄불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습수 정화장치는 알콜을 50% 가량 절감시키면서 지분, 잉크, 기름 등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인쇄물 광택을 유지하고 미세 망점의 재현으로 인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습수의 교체주기를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잉크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고 인쇄기와 냉각기의 청결 유지로 파지 발생량을 감소시켜 인쇄가동률을 높여 준다. 인쇄기 습수 정화장치의 장점은 △알콜 50% 절감 △미세망점 재현으로 인쇄품질향상 △지분, 잉크, 기름 정화 △인쇄물 광택유지 △폐수처리 비용절감 △금색, 은색, 백색 정화 △잉크 사용량 확실히 절감 △인쇄기 청결유지 △파지 발생량 감소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 100w 멸균 램프 장착은 주문사양이다. 한편 진공흡착방식편칭기는 베이스판에서 ps판 위치 조절이 가능하며, 편칭과 벤딩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 폐수제로와 블랙홀 등 친환경 제품도 공급

진성엔지니어링에서는 폐수처리장치인 '폐수제로'와 집진기인 '블랙홀' 등의 환경 대응 제품도 공급하고 있다. 인쇄 작업 시 발생하는 지분, 잉크 찌꺼기 등의 각종 오물이 섞인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폐수처리장치인 '폐수제로'는 환경문제 대응장비로 특허를 취득했다. 수백 번의 테스트 결과 인쇄기를 1시간동안 가동할 경우 무려 폐수의 80%까지 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진장치인 '블랙홀'은 인쇄기 상단에 부착할 수 있는 것과 인쇄기 옆에 세워놓을 수 있는 장치 두 개가 한 세트 구성돼 있으며 인체유해성분 대응장비로 역시 특허를 받았다. 완벽한 집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세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설치할 수도 있다. ↻

# 니콘이미징코리아, YG와 2011년 공동 마케팅 전개 광고 모델, 콘텐츠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전개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지난 3월 8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YG 엔터테인먼트(대표 양민석, 이하 YG)와 공동 마케팅 전개에 대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우메바야시 후지오 대표를 비롯해 YG 양민석 대표 및 빅뱅, 2NE1, 세븐, 유인나 등 YG 소속 연예인들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사는 콘텐츠 제휴 및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니콘이미징코리아는 2011년 YG 소속 전체 연예인이 참여하는 연중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업과 한 엔터테인먼트사 전체 연예인이 참여하는 연중 캠페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산업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메바야시 대표는 “최근 카메라 시장에 빠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니콘이미징코리아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을 맞게 됐다”며, “니콘이미징코리아와 YG 엔터테인먼트는 무엇보다 기술과 실력을 중요시 여기고,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대중 문화를 선도하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새로운 마케팅을 위한 협약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제휴를 통해 20~30대 젊은 세대를 고객층으로 끌어들이 국내 DSLR 시장 1위, 콤팩트 카메라 시장 2위를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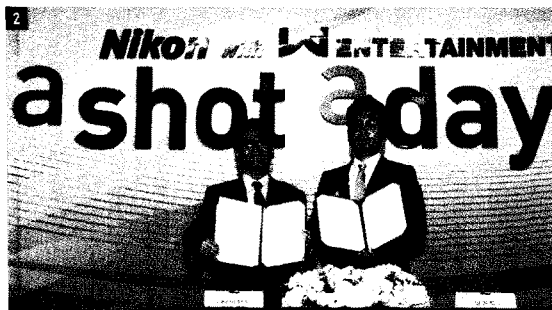
이와 함께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새로운 캠페인 ‘A Shot A Day’를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연중 캠페인 ‘A Shot A Day’는 니콘이미징코리아의 2011년 마케팅 전략의 핵심 컨셉이다. 모든 국민의 취미이자 즐거움이 된 사진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DSLR 카메라, 콤팩트 카메라 통합 캠페인으로 니콘의 젊고 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 일환으로 니콘이미징코리아는 YG 소속 연예인들의 일상을 니콘 제품으로 기록하고, 이를 에피소드로 연중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모든 니콘 영상 CF는 니콘의 동영상 기능을 갖춘 DSLR 카메라 제품으로 촬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니콘이미징코리아가 2011년 전개할 각종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YG 소속 연예인들이 참여하게 되며, ‘니콘송’도 음원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니콘이미징코리아는 프로야구단 두산베어스와의 협약을 맺고, 2011년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www.nikon-image.co.kr](http://www.nikon-image.co.kr)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mailto:sang@print.or.kr)



1 우메바야시 후지오 니콘이미징코리아 대표가 2011년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3 이번 행사에는 우메바야시 후지오 니콘이미징코리아 대표(가운데)를 비롯해 니콘이미징코리아의 공식 모델인 빅뱅, 2NE1, 세븐, 유인나 등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